

광주교육청, 공교육 동력 '기본교육특별시' 선언

이재명 대통령 기본교육 실천의지 담아…지속 가능 발전

이정선 교육감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축"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며 공교육을 통한 회복·성장·행복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교육 실천 의지를 전명한 것으로, 공교육을 기반으로 교육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광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비전과 국민주권시대의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계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심화 △기준 교육복지의 낙후화 가능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합성 강화 과제 △마음 아픈 교육구 성원 증가와 위험사회 속 학교 안전 요구 확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필수 역량화 및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어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놀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있다.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은 기본교육을 '교육안전망

-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으로 추진한다. 교육안전망은 교육구성원의 마음과 관계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체계로, 관계를 통한 마음건강과 인성·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여 학생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본교육 경비인 '꿈 드리미'를 통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성장은 학생 각자의 다양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듣는 영역으로, 기초학령과 독서·인문, 진로·진학·직업, 문화예술·체육교육을 다양화하고, 수학·과학교육과 AI·디지털교육, 글로벌 역량까지 미래 역량을 두루 지원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현재 조건에 머물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공동체는 소통과 협치, '광주다움'을 키우는 영역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ESG 기반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특히 이 교육감은 "'빛의 혁명'의 씨앗인 5·18정신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해 'K-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 걸맞은 광주다움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언한 기본교육을 내년도 광주교육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실력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민주시민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으로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으로 기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 성과를 기본교육을 통해 이어가겠다"며 "기본사회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며, 그 시작을 지금, 여기, 광주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뜰 07:35
해넘이 17:22
달뜰 05:01



광주		6~11
목포		7~9
여수		7~12
순천		4~11
구례		4~11
제주		5~11
제주		6~11
목포		7~9
여수		7~12
전남		4~11
광주		5~11
목포		6~11
여수		8~10
전남		4~12
진도		6~10
목포	밀물 (고)	12:43 / --:--
여수	썰물 (저)	05:19 / 18:15
여수	밀물 (고)	07:45 / 19:25
여수	썰물 (저)	00:49 / 13:48

김상욱 의원, 남구민과 소통

18일 '민주주의...' 주제 특강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이 광주 남구를 방문해 지역민과 소통한다.

김 의원의 남구 방문은 지난 7월 '명예 구민' 선정 후 두 번째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제7회 명사 초정 특별강연회'를 18일 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연회의 초청 명사는 올해 7월 명예구민으로 인연을 맺은 김상욱 국회의원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서면서 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전하는 등 신념과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명예구민증을 받은 바 있다.

강연회에서 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한 광주시민정신'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123일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남구 지역민들과 소통 및 공감의 시간을 이어 간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어린이 독감환자 급증 어린이 독감이 1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광주 북구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위한 어린이 환자들이 줄어들어 대기하고 있다. 질병청은 겨울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산구, 광산사랑상품권 100억원 '완판'

적립금 혜택 31일까지 운영

광산구는 지난달 5일부터 판매한 광산 사랑상품권이 전량 소진돼 판매를 종료한

다고 16일 밝혔다.

광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 최대 20% 혜택을 제공

했으며, 모바일 QR형과 체크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했다. 광산구는 상품권 물량 소진에 따라 10% 선할인 혜택과 판매를 종료했으며, 적립금 혜택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운영한다.

광산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은 16일 기준

58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실사용률은

58%에 달했다.

광산구는 사용 금액에 따라 즉시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역상품권을 통해 음식점·카페·마트 등 538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산구는 내년에도 명절을 맞아 광산사랑상품권 한시적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건강 관리 A to Z

만약에 증진은 물론, 끈튼한 강과 피부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는 '유니베라 슈퍼겔 W'는 일로에 생선에 최적화된 엑시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일로에만 사용해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니베라 슈퍼겔 W

성기와 활력을 기본, 강과 피부 건강까지
*20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한 일로에의 진화
성장력을 한 번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남양' 상표부문 우수제품부문 선정
2013~2022년

구성 및 가격
1호 1kg(97ml)x3병 | 135,000원
2호 150g(145ml)x10병 | 75,000원
디럭스 1kg(97ml)x12병 | 490,000원

설비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간 건강이 염려되는 분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밀크씨슬추출물을 주원료로한 간기능식품이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이 염려되고 자주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밀크씨슬추출물을 주원료로한 간기능식품이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성 및 가격
3개월 | 540캡슐
370,000원

설비 방법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회식이 찾은 편이라 꼭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매일 관리하는 간 건강
간은 건강할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부쩍 지치고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남양 931 플러스로 미리 미리 간 건강을 켜아하세요!

유니베라 하나로!
건강과 면역을 챙기세요!

유니베라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 알로에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